

# 전남 고택 6곳 '한국 민가정원' 선정

장흥 죽헌고택·무계고택  
나주 계은고택·흥기창 가옥  
창평 장전이씨고택·영광 매간당고택  
문화재연구소, '디지털 특별전' 계획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전남 고택 6곳을 '한국 민가정원'에 선정했다. 사진은 창평 장전이씨 고택. <문화재청 제공>

존재 위백수가 건립한 장흥 죽헌고택(전남민속문화재 6호)은 방촌마을을 고지대에 위치한다. 농촌의 전형적인 양반가옥 형태로 지어졌으며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헛간과 곡간체가 있다. 행랑채는 유실되면서 화단으로 조성돼 있다. 고택 내부에는 단풍나무, 동백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 구릉지에 축조돼 담장과 사랑채가 주는 분위기가 소담하면서도 정연하다.

장흥 죽헌고택을 비롯해 무계고택, 나주 계은고택과 흥기창 가옥, 창평 장전이씨 고택, 영광 매간당 고택 등 지역 6곳이 '한국 민가정원'에 선정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수목원은 한국정원 발굴 및 원형복원, 관리 등 활성화를 위해 2년에 걸쳐 모두 24곳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6곳이 선정됐다.

문화재연구소와 수목원은 등록된 문화재와 등록되지 않은 민가 정원들의 3차원 입체(3D) 스캔, 360도 가상현실 기록 등을 활용해 '디지털 민가정원'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발굴은 과거와 현재 정원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민가 정원 기록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전통조경 연구기술과 정원기술 등 전문성을 토대로 문헌과 현장조사, 식재기록과 분석, 소유자 인터뷰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민가정원 기록이 근대정원들을 아울러 한국정원사의 빈 지점을 채울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흥 무계고택(전남문화재자료 161호)은 조선

시대 철종 3년(1852) 고재극이 조성한 가옥이다. 급경사 지형에 3개의 공간이 상단, 중단, 하단으로 구성돼 있어 공간의 위계가 변별된다. 가옥 외부에 지당을 조성하고 배롱나무를 식재했으며 안채 앞 우물 주변에 석등을 설치했다.

풍산 흥씨 집성촌 도래마을에 내부에 위치한 나주 계은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은 마당과 문간채를 연결하는 주 동선에 판석을 설치한 점이 특징이며 사랑문에 1892년 건립됐다는 기록이 있다. 사랑마당과 사랑채 담장 아래 식생공간이 배치된 점이 눈길을 끈다.

나주 흥기창가옥(전남민속문화재 9호) 역시 풍산 흥씨 집성촌 도래마을에 있으며 1918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마당 관목 사이로 판석을 놓았으며 화단 주변에 괴석을 놓아 경관을 연출했

다. 건물 구조 등이 좋아 당대 가옥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라는 평가가 따른다.

창평 장전이씨 고택(전남민속문화재 41호)은 장전마을에 일촌한 이형정(1682~1752)의 종가다. 사랑방에 장방형의 방지와 중도를 조성하고 사철나무를 경계목으로 둘렀다. 과거에는 매화나무가 생육했는데 고사한 뒤 다른 매화나무로 대체됐다고 한다.

연안 김씨 집성촌에 지어진 영광 매간당 고택(국가민속문화재 234호)은 조선 후기 가옥이다.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사랑채, 서당, 연못을 배치했으나 현재 연못은 터만 남아 있다. 사랑마당에 화단을 조성해 은행나무와 관목류를 심었으며 뒷마당에는 감나무와 접시꽃 등을 심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위로 담아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 '나는 괜찮습니다...'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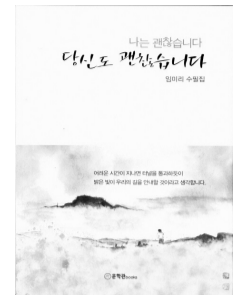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담은 수필집이 발간됐다.

화순 출신 임미리 시인이 펴낸 '나는 괜찮습니다'다. 당신도 괜찮습니다(문학관)가 그것. 시인은 어려운 상황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용기를 내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자는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책에는 법정스님 '무소유'를 읽고 찾아간 불일암에서 낡은 고무신 한 켤레를 보며 느낀 텅 빈 충만함을 비롯해 언택트 시대 서로의 안위를 위한 기도나 삶의 원천이라는 단상 등 의미가 담긴 글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우리는 늘 상처 받으며 살고 있고 그 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터널을 통과하듯 밝은 빛이 우리의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텅 빈 충만함을 찾아',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다', '당신도 괜찮습니다', '등대',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문학적 치



유와 감성을 담은 글을 만날 수 있다. 언뜻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을 저자는 동일시라는 섬세한 시선과 사유를 통해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으로 풀어낸다.

한상렬 문학평론가는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에 문득 일렁이는 격랑은 때로는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잔잔한 파도가 되어 독자를 감동시킨다. 쓰나미를 동반하는 거대한 해일이 아니다. 모래톱에 부서지는 잔잔한 일렁임이다"고 평한다.

한편 임 시인은 광주대 문창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2008년 '열린시학', '현대수필'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물고기자리', '엄마의 재봉틀'을 펴냈다. 현재 화순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전남대 평생교육원 수필강좌 전담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공원에서 25일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

광주공원에서 보름달을 보며 잊혀져 가는 전통을 되살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이 25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광주공원(광주시 남구 중앙로107번길 15) 당산나무 앞에서 펼쳐진다. 광주공원 당산나무는 총 두 그루로 옛 광주시민회관 주차장 입구 쪽에 위치해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공원의 기능을 되살리고 구도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의 잊혀져 가는 전통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4·19공포탄의 정월대보름맞이 '길놀이'를 시작으로 당산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진행한다. 참가자 전원이 어우러지는 '구동이와 함께 대동 한마당'



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4·19공포탄·광주시민회관 등 '구구 구동'이 14개 기관은 지난해 공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예술로 공동체 소통-풍물아 놀자', '정월대보름 구동이 한마당' 등 오는 12월까지 공연·교육·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52.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 자연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풍경들

이성자 동화작가 첫 산문집 '자식이라는 나무' 펴내

삶과 일상에 관한 묵상은 잔잔한 여운을 주기 마련이다. 마치 고요한 수면에 작은 잎사귀가 잔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연과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풍경을 잔잔한 목소리로 갈무리한 산문집은 언제 읽어도 편안하고 여운이 있다.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성자 동화작가가 처음으로 펴낸 산문집 '자식이라는 나무' (청동거울)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다.

작가는 살아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데, 행복한 기억보다는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이 오래도록 가슴 한구석에 머물로 남는다고 본다. 상처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마



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속삭인다.

"우리가 사는 집 안의 벽을 도배하듯 내 자신의 마음 벽도 스스로 깔끔하게 도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름답고 진솔한 색깔과 무늬를 담아 가슴속 천장도 벽도 새로 도배를 하고 나면, 원망이

켜켜이 쌓였던 상대방도 어쩌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책에는 53편의 글이 실려 있다. 가족과 사회, 자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깨닫는 내용과 사색은 수필이 주는 묘미다. 특히 표제작 '자식이라는 나무'는 저자의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은 누구나 부모로서 갖는 근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한편 이 작가는 산문집 외에도 창작집 '꽃길도 걷고 꼬부랑길도 걷고' (해솔)를 펴냈다. 다양한 이름의 길을 인생의 길에 비유해 동시와 동화로 풀어냈다.

영광 출신이 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영당이에 뽕났다', '입안이 근질근질' 등과 동화집 '뽕나무 날다', '손가락 체온계' 등을 펴냈고 이성자문예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 도이체 그라모폰과 계약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32·사진)가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DG)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유니버설뮤직이 22일 밝혔다.

유니버설뮤직 관계자는 "김봄소리는 오는 6월 솔로 데뷔 앨범 '바이올린 온 스테이지'를 낸다"며 "DG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한국인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소프라노 박혜상에 이어 세 번째"라고 말했다.

김봄소리는 줄리아드 음대 석사 및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마치고 뮌헨 ARD 콩쿠르, 하노버 콩쿠르, 몬트리올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비에나프스키 콩쿠르 등 세계적인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19년에는 DG 소속인 폴란드 피아니스트 라



츠 악스만의 곡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6월에 낼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9㎡(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 문의. 010-3605-500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